

## 時論

##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이 제 환\*\*

## 〈목 차〉

1. 이야기를 시작하며
  2.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지변의 논리'
  3.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 실태, 요인 그리고 대응논리
  4.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 실태, 요인 그리고 대응논리
  5. '생존의 위기'로부터 탈출을 위하여
  6. 이야기를 마치며
- 참고문헌

## 1. 이야기를 시작하며

달포 前, '기관자문위원'이라는 감부를 쓰고 정기적으로 업무 평가와 정책 자문을 해오던 한 <정보센터>로부터 시급히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그 연락을 받던 순간부터 약 3주 동안 나는 뜻하지 않게 또하나의 '과외' 업무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 <정보센터>의 소장에 의해 반강제로 이끌려간 곳은 나라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의 본부(기획예산위원회)였다. 그 뜻하지 않은 방문은 나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어렵풋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나, 막상

\* 1998년도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주최 제30차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특별강연 자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일을 마치고 난 후에 뒷맛은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그 곳에서 정부부분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고위인사와 정보센터들의 구조조정업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젊은 서기관을 만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보센터와 관련한 업무는 그 젊은 서기관의 전문적 식견의 한계를 벗어나 있었다. 나를 끌고 그 곳으로 향한 <정보센터>의 소장 또한 정보유통을 전공한 분이 아니었기에 당시 내가 느꼈던 자괴감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두 사람의 非전공자가 내 전공분야의 국가적 大事를 주무르는데 그 옆에서 단지 '조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현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하고있는 학문과 현장의 실상을 다시 한번 냉철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기획예산위원회'와 '학문과 현장의 실상'에 대해 운운하는 理由는, 정보센터나 도서관이나 모두 문헌정보학의 현장이며 이 기관들의 미래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과 결코 분리되어서 논의될 수도 또 되어서도 안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보다는 소수 국외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설립된 정보센터에서나 단위 대학의 도서관에서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처지를 냉철히 인식하고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모여 아무리 고담준론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만한 실천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금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과 그 주변에 깔려있는 가치와 철학의 변화를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깨닫고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선학과 선배들이 들여왔던 노력이 우리 代에 이르러 무위와 허사로 돌아가는 참담함을 겪게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998년 8월 현재, 우리 학계와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급격하다. 이 변화의 물결속에서, 비록 명목뿐이었을 지라도 '대학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던 대학도서관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여 독립기관으로서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고, '지식과 정보 자원의 공식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던 대학도서관 사서 또한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업무의 전문성에 관한 시비에 노출되면서 직업군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도 그 곳에서 근무하는 사서도 그 위상과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여야만 대학도서관도 사서도 그 위상과 정체성을 유지 혹은 재정립하면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일까?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우리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저변의 논리'를 거시적 안목에서 조망하는 것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 2.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저변의 논리'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특히,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나는 이 자리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정보매체의 변화가 어떻게 정보기기의 보급이 어떻게 하면서 여러 분의 귀에 익히 익은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기술 중심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한, 정보사회의 제반 특성이 어떻게 정보산업의 확대 추세는 어떻게 정보서비스의 발전 경향은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이 과거 언젠가 접했을지도 모르는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정보사회론적 관점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의 개방이 어떻게 교육수요자의 감소가 어떻게 교육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서 대학교육현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나는 이 자리에서 대학도서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고 있는 조금은 성급해 보이는 변화의 물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들의 비판적 시각에서는 저만치 벗어나 있는, '저변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의 대학도서관이 1998년 현재 '통폐합으로 인한 교유의 정체성 상실'이라

는 위기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여러 학자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제라도 변화하는 정보환경과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여러 논자들의 처방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만으로 정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는 생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우리 대학도서관을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대학도서관의 위기가 단순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대학도서관이 맞고 있는 위기는 대학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소홀하고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정체성을 잃어가던 상태에서 환경의 변화에 무관심하거나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김으로써 스스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때 그와 같은 변화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주인된 자리를 스스로 내주고 종속된 위치에 만족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다름없다. 역사를 훑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거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개인이나 조직은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장비로 무장하더라도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하였던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앞서 인지하여 그 변화의 저변에 흐르는 논리를 꿰뚫고, 그 논리의 '참됨과 거짓됨'을 냉철히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변화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을 때에는 막차에라도 올라타려고 서두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학도서관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논리의 정제'를 밝혀보자? 나는 대학

도서관의 운영자와 사서들은 다음 두 가지 '저변의 논리'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맹위를 떨치고 있는 무소불위적 경제논리이며, 그 둘은 기술결정론에 광기가 더해진 기술광신주의이다.

먼저, 우리 사회에 경제논리가 지배적 힘을 행사한지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나, 최근 IMF로 인해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그 세가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공기업 등 경제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제 분야의 거의 모든 영역을 무섭게 흔들어 대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한 거품제거 노력이 '성장논리'를 앞세워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전형적인 서구적 가치 척도인 '효용성'이라는 잣대를 획일적으로 들이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 '전통'이니 '독창성'이니 '문화적 가치'니 하는 말은 이미 그 논리 앞에 힘을 잃고 말았다. 특히, 국가 백년지대제의 기본이 되는 교육분야마저 경제논리에 의해 기본 체도가 흔들리고, 교육행위에 있어서조차 인문적 가치보다는 효용적 가치가 중시되는 망국적 현상이 일고 있다.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이 문화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휩싸이면서 '상아탑'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게 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는 인간의 삶의 질과 철학적 가치를 중시하며 단기적 효용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꿰뚫을 일이 아니던가!

무소불위의 경제논리에 더하여 기술결정론의 극단적 논리(기술광신주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과학입국'이야 오래된 구호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매스미디어의 부추김에 힘입어 '기술개발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가 村老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당연히,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과열의 기미를 보일 정도로 커지고 있다. 기업 등 민간부분의 투자는 물론이고 정부에 의한 직접 투자가 크게 늘면서, 기술개발과 관련있는 분야 특히 컴퓨터 및 정보통신으로 대변되는 첨단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아니 대학이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학내에서도 효용가치가 큰 기술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와 지원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철학적·이론적 가치를 중시하는 순수학문은 차츰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큰 상품을 제조하여 귀중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일겠다는데, 그래서 경제논리와 더불어 기술우선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그에 대해서 대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기술개발의 방식이며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이들과 관련 행정가들의 의식이다. 독창적인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인문학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어떤 기술도 자연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궁극적인 사용자인 인간의 속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산업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식속에 토착 문화와 기초 학문에 대한 존경심이 점차 쇠박해져 가고 있다. 대학캠퍼스에도 기술개발의 토양이 되는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당장 요긴한 데이터나 정보를 탐색하는데 열중하는 기술광신주의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이들 중의 일부는 '인문학과 기초과학 무용론'이라는 극단적 광기를 노출시키면서, 단기적 실적을 늘 목말라하는 대학사업가(?)와 교육행정기(?)들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있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몰락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작게는 학문의 쇠퇴와 교육의 몰락을 의미하고 크게는 인간성의 상실과 문화의 붕괴를 예고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성의 전당'의 중앙에 거하면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대화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지식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탐구 여행'을 제공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던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그것은 또한 인류에 의해 생산된 각종 지식과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유통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던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돼먹지 않은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 선배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명목은 유지해 왔던 '지성의 전당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간을 맞고 있다.

### 3. 추락하는 대학의 심장: 실태, 요인 그리고 대응논리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로 무장한 신흥 귀족들(?)이 대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대학의 경영철학이 이들의 가치와 방식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목도된다. 앞서 언급한 학문활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편중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업무규정과 평가기준 또한 이들의 의식과 행태에 어울리게 바뀌어 간다. 이들의 영향력은 대학의 조직구조 개편작업에서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대학의 심장이라는 낙내임에 걸맞지 않게 실제적으로는 인문학과 일부 기초학문의 실험실 역할에 그쳐왔던 대학도서관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벌써 몇몇 대학에서는 '정보기술자'와 '교육공학자'들이 합작하여 '정보처리기관'인 전자계산소를 앞세워 '지식유통기관'인 도서관을 통폐합하고 '학술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첨단 정보유통기관'을 설립하는 구조조정을 한창 추진 중에 있다. 이들 그룹의 시도는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가칭 <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이름의 국가정보센터의 설립 소식에 더욱 힘을 얻으면서 점차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에 밀리면서 대학의 심장에서 일개 부서의 위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이제 그 낙내임마저 '학술정보센터'에 넘겨주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아마 혹자는 170개가 넘는 대한민국의 대학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몇몇 사립대학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일을 갖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다고 못마땅해할지도 모른다. 사실 1998년 8월 현재 내가 수집한 자료에 의거하면, 한남대, 아주대, 신라대, 한양대, 포항공대, 숭실대, KAIST 등 8개 대학 정도가 학술정보원을 신설하고 지금의 대학도서관을 학술자료실로 축소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 중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로 무장한 대학의 신흥 귀족들이 여타 사립대학이라고 없겠으며 국공립대학이라고 없겠는가! 실례로 내가 재직중인 '국립'부산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얼마 전 비공개자료로 간행된 <1998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신청을 위한 교육개혁추진 실적 및 계획서>라는 긴 이름의 보고서를 보면, 부산대학교 대학도서관의 운명도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이 보고서의 [대학의

정보화] 관련 부분에 보면, '대학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의지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그'가 올 9월로 예정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의 공포와 동시에 추진할 첫번째 일이 전자계산소, 도서관, 멀티미디어교육원, 전화교환실 등 **정보화**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案이 과연 부산대학교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일이다.

대학도서관을 학술정보센터에 통합하여 학술자료실이라는 일개 부서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 경제논리와 정보기술로 무장하고 가담치도 않은 '가상00'을 주창하는 자들과 그들의 논리에 포로가 되어 '정보화중독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는 수많은 대학경영자들의 야심찬 계획이다. 하긴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대학이 '기술개발 공장'으로 변질되면서 대학내에 이공계 중심의 새로운 지배세력이 득세하는 판에, 문화논리와 '전통'에 의지해 왔던 대학도서관이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의 과상적 공세를 어찌 당해 내겠는가! 또한, 디지털매체 중심의 여러 <정보센터>들이 저마다 독립성을 띠고 대학내에 설립되고 있는 판에, 인쇄매체 중심의 대학도서관이 어찌 홀로 그 공세에 버티어 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교육행정가나 정책입안자들이 대학평가를 실시할 때 대학의 심장이라는 도서관을 전체의 4%정도 (21/500)의 비중을 두고 취급하는데, 어느 대학경영자가 4%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는가? 더군다나, 학문후속세대의 의식과 행태가 이미 한 편의 교양서적보다는 한 편의 비디오를 선호하는 쪽으로 선회한지 오래인데, 새삼 '사색과 철학의 공간' 운운하면서 대학의 심장을 살려야 한다고 외쳐댄들 그 누가 나서서 구명운동에 협조하려 들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읽고 있는 일부 똑똑한(?) 사서중에는, 학술정보원이 되든 학술정보센터가 되든 대학도서관의 입장에서 지금보다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전화로 의견을 나눈 현직 사서 중에는 학술정보센터로의 통합을 오히려 반기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 동안 대학도서관이 말이 좋아 대학의 심장 운운하였지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진 적이 있는냐는 반론이었다. 대학경영자도 그렇고 정년퇴임전에 예우차원에서 발령받아 부임해 오는 도서관장들도 그렇고 고객인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조차 누구하나 애착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 기



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느냐는 반문이었다. 그들은 만약 대학설치령이나 대학평가기준에 도서관에 관한 항목이 그나마 없었더라면 도서관 없는 대학도 많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극언도 서슴치 않았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 학술정보센터로 통합되어 일개 부서가 될지라도 그나마 경영층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 지원을 받게 되고 도서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사서의 지위나 대우도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통제합되어 그가짓 이름쫓 없어지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는 이야기였다.

일면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는 있어 보인다. 하긴 '깍뎀기는 가라'고 외쳤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유명무실한 깍뎀기는 버리고 실속을 차리는 것이 백번 나을지도 모른다. 대학 4년동안에 도서관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어느 학생의 고백이 공공연하게 인구에 회자되고, 도서관에 불이 나면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내가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어느 교수의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료교수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고객의 눈에 비친 대학도서관의 모습이며 실상이다. 이러한 실상을 안타까워하면서, 학기초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실험공간이 부족하여 각종 도구를 복도까지 늘어놓고 분주히 연구에 몰두하는 A대학 실험동과 고객의 발길이 뜸해 을씨년스러운 정도인 도서관을 대학경영층이 우연히 방문했다면, 과연 어느 기관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겠는가? 고객이 외면하는 기관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할 경영자는 세상에 없다. 고객의 눈에 비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다면 그래서 그 존재 필요성이 고객에 의해 의심받는다면, 이러한 명목상의 기관은 없애버리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번 기회에 명목만의 깍뎀기는 버리고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자는 일부 사서들의 주장이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지 싶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있노라면, 순진함과 비굴함의 두 얼굴이 동시에 땅막에 교차한다. 단순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前者에 속한다면, 자신의 태생과 정체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서 서둘러 '지금의 음지'에서 탈출하여 '미래의 양지'에 속하고자 애쓰는 경우가 後者に 속한다. 도서관을 죽이려는 적들이 도서관 내부에도 있다더니 대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주장

하는 것처럼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센터의 일개 부서로 축소통합되더라도 대학도서관의 고유 기능은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것인가? '정보화'를 전공하였다고 해서 동료 '도서관학자'들에게서 '첨단파 혹은 급진파'라고 불리는 나조차도 이 점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이다. 나는 이들이 말하는 도서관의 '고유 기능'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다시 말해 이들이 생각하는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들은 혹시 오랜 세월 대학도서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국외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논리에 져버든 것은 아닐까?

일부 현장사서와 문헌정보학자들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학술정보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을 우리 도서관계의 몫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아!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탓인지! 이 글의 서두에서 나는 <정보센터>의 구조조정이 정보유통의 전문가로 자칭하는 우리 같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非전문가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이어, 대학도서관의 구조조정 또한 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논리와 정보기술로 무장한 타분야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들이 <학술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그 주도권을 도서관사서에게 혹은 문헌정보학교수에게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흔쾌히 넘겨주리라 생각하는가? 아니 스스로 넘겨주지 않는다면 빼앗긴 영토를 싸워서라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도서관계의 사람과 정보기술계의 사람 혹은 교육공학계의 사람 중에서 어느 그룹의 세가 더 강한지, 특히, 어느 그룹이 대학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결과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자! 이쯤 되면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학들이 대학도서관을 왜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에는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이 배어 있다. 일전에 썼던 글에서 나는, 최근 여러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는 정보센터가 '정보의 시공간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서관은 '지식의 시공간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당시 이 말은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유통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지식의 유통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정체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대학도서관은 지혜의 샘이요 지식의

창고이다. 첨단적(?) 용어를 동원하여 풀어보면, 대학이라는 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시스템이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시스템이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지원시스템이다. 이 말의 의미는 대학도서관은 단순한 학술자료실이나 학술정보중개실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며 연구기관이며 무엇보다도 문화기관이라는 이야기다.

요약하건대, 대학도서관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요 문화적 공간이다. 이 공간이 있기에 대학이 그나마 대학인 것이요 우골탑이 아닌 상아탑인 것이다. 대학도서관이 효용성을 앞세운 경제논리와 첨단기술을 앞세운 기술광신주의에 무릎 꿇고 그 자리를 '도구학'이나 '방법론'을 전공한 자들에게 내어줄 때, 대학은 그나마 명목상으로 남아 있던 '지성의 전당'이기조차 영영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 4. 흔들리는 사서의 정체성: 실태, 요인 그리고 대응논리

조직이 위태로우면 조직원이 흔들리고, 조직원이 흔들리면 조직이 위태로워진다. 대학도서관이 정체성을 잃고 추락하는 상황에 더하여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를 태우는 것이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서는 과연 전문인가'하는 다소는 진부해져 버린 주제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전문인'으로서의 대학도서관 사서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논의와 질타는 우리 분야의 여러 논자들에 의해 이미 질편하게 다루어진 바 있거니와, 스스로 '전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는 현장사서들은 이러한 문헌들을 찾아 정독하기를 권고한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대학도서관 사서에게 있어 고유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함께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사서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나는 한 세미나에서 문헌정보학의 元祖인 미국의 상황에 빗대면서 '우리의 도서관과 미국의 library는 결코 동일한 기관이 아니요 우리의 사서와 미국의 librarian 또한 결코 동일한 직업군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의 성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의미보다는 각각의 기관과 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사회에서의 librarian이라는 직업과 우리 사회에서 사서라는 직업사이에는 결코 매울 수 없는 괴리가 있다. 특히 대학이라는 기관을 배경으로 하여 academic librarian과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괴리의 폭은 더욱 늘어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학도서관에서 librarian은 knowledge manager요 information gatekeeper요 educator이자 trainer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faculty의 신분을 지닐 정도로 research에 열중이다. 미국의 academic librarian에 대해서 사실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의 identity, 즉, 정체성이다.

미국에서 academic librarian하면 대학 구성원들은 (교수이건 학생이건) 특정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린다. 그 이미지가 바로 미국의 academic librarian이 지니고있는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에 근거하여 academic librarian이 되기 위한 기본적 자질과 요건이 설정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의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여기서는 그 이미지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직업과 관련한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하는 문제이다. 불행히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나는 일년여 전 대학교수들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내가 표본으로 선정한 교수들과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먼저, '사서는 누구인가'하는 질의에 대한 교수들의 대답에는 분명한 편차가 있었다. 이 편차는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서들과의 인터뷰 결과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어디선가 들은대로 정보사원의 관리자요 중개자라는 조금은 현대적 의미의 용어도 간혹 등장하였지만 '나는 누

구다'라는 분명한 대답을 준 사서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나는 우리 대학도서관 사서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서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혹은 기관에서 자신에게 위임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서야 많은 지식을 머리에 쌓아둔다거나 첨단 기술을 몸에 익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이 갖추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자긍심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해 보이나 남의 것은 대단해 보이며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으나 남의 직업은 위대해 보이기 마련이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의 이론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류나 유행에 민감하며 방어논리에 약하다. 시류나 유행에 민감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다. 눈치만 보고 공연히 마음만 불안하다가 제풀에 체념하기 일쑤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해도 방어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맥없이 자신의 영토를 포기하곤 한다. 게다가 일부 회색인들은 기만하게 움직여 신홍 세력의 편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배반 행위도 서슴치 않는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약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태이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학자인 A. Toynbee의 이야기며 커뮤니케이션학자인 E. Rogers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사서는 도대체 누구인가?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작업장, 곧 대학도서관의 정체성과 맞물려있다. 가령, 우리가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대학의 구성원이 학습, 교육, 그리고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자원의 시공간적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다면,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자원의 시공간적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사서는 과연 어떤 종류와 형태의 지식과 정보자원을/어느 정도의 시공간적 한계를 두고/어떠한 방법과 경로를 거쳐 유통시키느냐 하는 점과,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권위를 공인받느냐 하는 점에 놓여 있다. 前者는 고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사서의 능력과 관계되고, 後者는 그와 같은 행위를 고객이 당연히 받아들이느냐 하는 사서의 권위와 관계된다. '고객이 인정하는 진단과 처방을 내릴 능력과 권위'를 지니려면 대학도서관 사서직은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1998년 현재 우리 대학도서관의 사서에게는 공인된 '직업적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신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희미해지는 것이다.

여기 우리의 대학도서관 사서가 스스로 판단하는 '직업적 전문성'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다. 정보기술이 보급되면서 대학도서관에 전산화 바람이 불고 난 후 얼마 안되어, 대학도서관에는 전산사서라고 불리는 새로운 직명이 생겨났다. 초기에는 전산학을 전공한 프로그래머들이 도서관으로 유입되어 이 직명을 갖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문헌정보학과 출신중에서 제법 기술력을 갖춘 이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산사서가 대학도서관 사서중에서 '직업적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인받는 최초(?)의 직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여러 현장의 사서들은 고백한다. '모두 전산사서를 부러워해요.' '과장들도 합부로 못 건드리죠.' '살아 남으려면 정보기술을 배워야 할까 봐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 학회에서 개최하는 workshop도 첨단정보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면 대부분 성황이다. 전산사서! 아마도 영미권의 systems librarian을 번역한 용어로 짐작되는 이 직명이 현장의 젊은 사서들의 바람이요 희망이란! 늙은 사서라고 해서 부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쇠하여 스스로 알아서 포기했다. 그러나 우리는 systems librarian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심어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외과 의사는 직명에서 중심어는 의사인 것처럼, systems librarian에서 중심어는 librarian인 것이다. '전산'이 주요 개념이 아니라 '사서'가 주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컴맹은 지식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세상인데, 하물며 최신의 정보를 다룬다는 도서관에서 컴퓨터와 통신을 몰라야야 말이 되겠는가! 1998년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지식과 정보자원의 시공간적 유통'을 담당하려면 정보기술의 습득은 필수이다. 다시 말해, 정보기술의 운영능력은 대학도서관 사서가 갖추어야할 필수 자질이지 더 이상 선택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서로서의 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정보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 위상제고를

시도할 목적으로 정보기술에 의존하려 든다면, 요즘처럼 영역다툼이 치열한 시기에 경제논리와 첨단기술로 이미 무장을 마친 이들에게 안방을 내어주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다. 가령, 변호사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평가받는다는 소리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 간호사가 컴퓨터를 모른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나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간호사는 앞으로 생존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간혹 듣는다. 물론 정보를 직업적 키워드로 삼아야 하는 사서의 처지와는 다른 사례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학도서관 사서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에 더욱 치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

## 5. '생존의 위기'로부터 탈출을 위하여

대학병원에 의사로 재직중인 친구와의 대화 내용이다. 대학병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진료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도무지 정체성이 흐려진다 보니 기능에 혼선이 생겨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공연히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나마 재정적으로 유지되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의 질도 형편없단다.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란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기능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충실히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단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외국계 대형 병원이 등장하면 살아남는 대학병원은 아마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가 될 거라 했다. 의사들도 정신차릴 시점이란다. 앞으로 웬만한 수술은 기계가 행하고 이미 진단과 처방의 많은 부분이 컴퓨터에 의해서 수행된단다. 의사도 생존하려면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사랑받으려면 醫術 못지 않게 중요한 덕목이 仁術이 아니겠느냐며 싱긋이 웃었다.

현명한 독자들은 이 이야기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였으리라고 믿는다. 대학병원과

의사에게 있어서나 대학도서관과 사서에게 있어서나 환경의 변화가 주는 영향은 대단하다. 특히, 소위 정보시대에 첨단정보기술이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서 기존의 업무 형태와 방식을 바꾸어 놓을 뿐 아니라 때로는 기존의 기관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살아남는 기관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기관들의 공통점을 찾아 보면 그들의 경영철학과 구성원들의 행태에서 남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그들은 반드시 굳건한 직업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적절히 변용시켜 나가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유연성은 대개 고객들과의 대화라는 피드백 과정에서 생성된다. 고객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앞서 감지하고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한발 앞서 진행하기에, 이들에게 환경의 변화는 위기라기보다는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된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학도서관과 사서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한다. 나를 원하는 고객을 재발견하고 그 고객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일 말이다.

지금은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에 일반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센터의 일개 부서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대학도서관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기를 원하는 말없는 다수의 고객을 찾아나서서, 그 고객들과의 부단한 대화를 통해서 대학도서관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그 미래상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적극적인 개념의 도서관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로 대변되는 대학도서관 고유의 영역을 탐내는 외부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은 전통에 의지하거나 대학내에서의 서열이나 위상만 믿고 전자계산소나 소규모 정보센터 그리고 교육지원시설로부터의 도전에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지금은 경제논리와 기술광신주의를 등에 업고 '정보화중독증후군'에 시달리는 대학경영자를 현혹하고 있는 '학술정보센터' 주창자들의 집요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대학도서관이 학술정보센터의 일개 부서로 전락하더라도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되면 자신의 초라한 위상도 '첨단'의 반열에 오르리라고 기대하는 철세들은 대학도서관을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지금은 대



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에 애착을 갖고 그 정체성에 운명을 건 그런 사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도서관은 전산소나 전화교환실과 같은 시설이나 설비가 아니며 교무처나 학생처와 같은 행정부서도 아닌 '교수와 학생과 더불어 대학이 대학이게 하는 대학의 기본 요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한편으론 자신이 주도가 되어 정보유통기능을 보완·강화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첨단정보시대에 어울리게 확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내 군소 정보유통기관들을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스스로 만들고 대학경영층을 설득하는 일에 발벗고 나설 그런 사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학술정보센터든 학술지식센터든 국외자들이 월가월부하기에 앞서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용기있는 사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대학도서관 사서는 정책전문가이어야 하며 P.R.전문가이어야 하고 경영전문가이어야 한다. 주제배경과 자료관리능력과 정보기술력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정책입안능력과 대외교섭능력을 추가로 갖춘 그러한 슈퍼맨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대학도서관에서 이러한 자질을 고루 갖춘 슈퍼맨을 찾기란 쉽지 않다. 슈퍼맨은 고사하고 '직업적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춘 전문 사서의 수도 절대 부족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 대학도서관이 처해있는 위기의 본질이 있고, 동시에, 이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놓여있다. 이처럼, 지금부터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은 대학도서관 사서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반이 되는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다. 1년이면 강의록의 내용이 30-40%가 바뀌는 우리 학문분야에서 '직업적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유지한다는 것은 웬만한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헌박물관'의 유물보존사로서의 위상에 자족하거나 '정보기술자나 매체전문가'의 조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면 논외로 치겠지만, '지식의 전당'에서 '지식과 정보의 관리자요 중개자요 교육자'로서의 주체적인 역할과 의무를 다하려면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장황했던 이야기를 접으면서 우리 대학도서관의 실질적 오너인 중견 사서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중견 사서들이 앞에 나서야 한다. 앞에 나서서 대학도서관 고

유의 정체성을 주창하며 외부의 바람과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대학의 경영자들을 설득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사람'키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전문 사서는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만들어짐을 기억하면서, 씩이 보이는 유능한 후배들을 발굴하고 발탁하여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후배들, 특히 직업적 철학과 지식과 기술을 고루 갖춘 후배들을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사서들이 '직업적 전문성' 갖추는 것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의 시대'에 개인적 차원보다는 직업적 관점에서 '사서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만이, 대학도서관도 살고 사서도 살고 나아가 뽀기관인 대학도 살고 학문도 사는 길임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한다.

## 6. 이야기를 마치며

'자문위원'이라는 감투를 쓴 또다른 기관이 개최한 세미나에 초청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주최측의 한 인사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보센터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어내겠습니까?" 그 때 나는 대답하였다. "결국 사람의 일이니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해 하는 그 분에게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첨단 장비나 시설 그리고 우수한 성능의 시스템 등 많은 요소가 중요하지만, 당신 기관은 결국은 고객을 대상으로한 서비스기관이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고객관리라고 본다. 요즘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모두다 힘들지만 어떠한 기관은 살아남고 어떠한 기관은 퇴출된다.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 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고정 고객이 수적으로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대단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그 기관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 그 고정 고객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라. 왜냐하면 그 기관은 이미 그 고객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

어있으므로, 만약 없어진다면 그 고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하지않을 터이니까. 그 기관을 위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퇴출조치에 항거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네 정보센터가 없으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될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해 두는 일이다. 아무리 당신 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그들은 당신 기관의 돈든 후원자로 남을 터이니까. 끝으로 나는 덧붙였다. 당신 기관의 고객이 '정보'에 관한 한 당신 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인데, 그 비결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 참 고 문 헌

- 김정근 (1995).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도서출판 한울.
- \_\_\_\_\_ (1997). "도서관 담론에 나타나는 가벼움의 기원에 대하여." *도서관문화* 38(4): 276-283.
- 권은경 (1997). "도서관의 본질과 미래 도서관상(像)." *도서관학논집* 27 : 423-454.
- 박인용 (1996).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25 : 207-223.
- 이제환 (1992). *Information Dependency and Information Development in the NIC s :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CLA.
- \_\_\_\_\_ (1998).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의 현실성." *도서관문화* 39(3) : 226-240.
- \_\_\_\_\_ (1998). "전환기 한국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학문성과 현장성의 제고를 위하여." *1998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pp. 13-44.
- \_\_\_\_\_ (1998). *정보유통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서울 : 기획예산위원회.
- 최정태 (1997). "도서관의 정보마인드와 운영주체." *도서관문화* 38(4) : 297-306.
- Birdsall, W. (1994). *The Myth of the Electronic Library : Librarianship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Westport, CT : Greenwood Press.
- Crawford, W & Gorman, M. (1995).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IL : ALA.
- Harris, M. & Hannah, S. (1994). *Into the Future :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Norwood, NJ : Ablex.

## Needed to Recover : the Identity of Academic Libraries and Librarians

Jae-Whoan Lee\*

###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identity' issue of academic libraries and librarians in South Korea. With the rapid social changes, both academic libraries and librarians in South Korea are confronted with a crisis for survival. This paper criticizes the two main social ideology led to such a crisis : namely, the extreme forms of capitalism and technological determinism. To overcome the present crisis, this paper recommends the academic libraries to recover or reform their identity as a cultural, especially, knowledge organization, not just as an information agency. Also recommended for academic librarians is to make their best effort to be a real professional with the required knowledge and experience.

---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usan National University